

비록 저 높은 하늘이나 신의
마, 밀천, 제석이라 하더라도 모
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이기는 못한다
(法句經-술전품 130절)

東大新聞

창간일	1955.10.13
발행처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262-290-3492
팩스	262-279-1270
이메일	707@dongguk.ac.kr

제 1140 호 (주간)

1994.1.1 (토요일) 10
1955.10.13 제38호(월) 7(가) 일요일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단기4327년) 1월 1일 (토요일) 【 1 】



새해 아침 칠이살사

◀ 새해 아침

임동주

9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작가
(41×28cm)

지/면/안/내

- 2면 농산물 시장 개방 의미와 대책
- 3면 등록금 16% 인상
- 4면 감귤수입개방 앞둔 제주도
- 5면 제1기 한총련 사업 평가와 전망
- 6면 '93 10대 뉴스
- 7면 기자방담
- 9면 '93 문학 총평
- 10면 신년특집좌담
- 11면 부속병원 장·단기 발전안 마련 시급

미래를 위한 창조적 역할에 앞장서자



새해를 맞으면서

신 경 립
(동문서인)

살을 에는 바람이 어찌 아프지 않나라
불을 때리는 눈비에 설움도 쌓이겠지
꽃을수록 극성을 부리는 어둠이 두렵기도 할거야
하지만 기쁨 또한 작지 않으리
젊은이들 뜨거운 입맞춤에 못본체 눈길 돌리고
쳐진 어깨들 귀가길에 동무가 될 때
다시 멀리 전철 종점까지 달려 내려가
기쁨때 묻은 손을 잡아 골목으로 돌아설 때

날 밝아 잊혀져 홀로되면 외롭기도 할거야
새파란 하늘 붉은 해에 주눅도 들고
행인의 괜한 시비엔 맥도 빠지겠지.
그러나 아무도 모를거야 붙어진 그 시간
쳐다보는 이 없는 골목에서
내 빛이 내 안을 환히 비추리라는 건
몰려오는 어둠 속에서 내 얼굴 더 빛나는 까닭
더 밝고 더 환한 까닭 누가 감히 알라

기둥이 되어 서 있을 나의 새날은

트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오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욱 열심히 뛰는 적극성과 창의력, 그리고 전통적인 철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개방사회속에서 경쟁의 후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지식과 정보의 축적에 있어 우리의 경쟁이 되는 외국대학의 영재들이 불을 밝히며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경쟁력 있는 학문활동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즉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확보를 비롯하여 우수 교수 초빙과 함께 연구소와 연구실을 중심으로한 학풍 쇄신작업에 지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존재의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 구성원에게도 각자의 위상이 있습니다. 항상 무탈한 객임감으로 교수는 성실하게 강의와 연구에 임하고, 학생은 진지하게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에 정진해야 합니다. 또 교직원 은 강의와 봉사의 자세로 유리창을 닦듯 하부하무 일에 충실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의 역사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21세기와 개교 100주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뜻과 능력, 학문을 발전시키고 꽃피울 뜻과 능력,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나아가 뜻과 능력,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려는 뜻과 능력을 보이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동국과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안에서 더욱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사 장
오 녹 원 합장

새동국 약진의 전기 이룩하도록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는 우리학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학교구성원 여러분의 인내와 단결, 그리고 동국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애교의 충정으로 제반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정상적인 면학분위기를 갖게 된 것을 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이러한 진통속에서도 우리학교는 꾸준히 학사행정을 정상화하고 거교적으로 발전을 모색한 나머지 학부에 복원학과를 위시한 6개학과와 신설 및 대폭적인 증원을 실현하였으며 12억원의 시설확충 및 도서관임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경주캠퍼스의 자연과학관 준공과 교내 재단 교육환경의 개선 및 우수교수의 초빙이 있었고 특히 본교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의 발족과 더불어 최근에는 전통창의 임원진 및 많은 동문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동국대학교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결성되어 앞으로 "동국학술문화발전의 전령" 등 동국발전에 획기적인 건원자의 역할을 실현해 줄 것으로 확신하며 마음드든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교 88주년을 맞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학교의 학문적위상을 제고하고 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95년도 내각종합평가에 대비, 제반 교육내용을 충실하고 학사업무보다 개혁할 방침

입니다. 따라서 교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고 학생여러분은 무엇보다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개혁과 지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감안하여 우리대학도 21세기를 대비한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개혁안을 작성,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울러 '동국학술문화발전'을 위한 불교계와 병동국인의 동참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포함병원과 한방병원의 증축 및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한 제3캠퍼스의 건립계획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 밖에 우수교수를 초빙하여 교수확보를 높이고 계속해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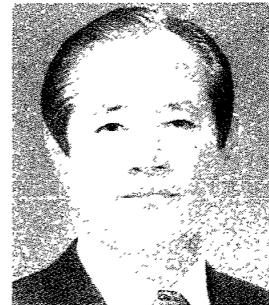
그러나 학교의 발전은 결코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의해서 새 동국중흥의 꿈은 이룩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국의 주인이요 주체라는 뜻으로 동국을 아끼고 사랑할 때 동국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울러 우리 동국인들은 새 동국건설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세계 속의 동국이 우리나라 대학의 위상을 선드해 나아가 수 있도록 우리 동국인 모두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도록 각오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새 동국건설의 기상이 충만하고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 장
민 병 천 합장

'동국 르네상스'의 도래를 위해



갑술년 새해가 열리는 새 아침에 10만 동국인과 함께 모교와 재학생 후배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해가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국대학교는 일제의 억압으로 민족이 신음하고 있을 때, 불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 문화정당로 민족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선각자들에 의해 이 땅에 세워진 민족사학입니다. 이처럼 척박한 토양에 뿌리를 내린 동국대학교는 90여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견뎌내며 이땅의 자양분을 흡수하고 이 민족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온 힘을 기울여서 10만 동국인의 지혜와 역량을 한군데로 결집을 하여 모교의 발전에 온 마음을 다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말고 실력배양에 힘을 써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 동국이라는 거목도 국내에서 물이치는 변화의 바람을 맞아 새잎과 새줄기, 새뿌리를 결실해 필요로 하는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이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맞게 WTO체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외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내에서도 개방과 국제화의 열기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동국이 민족사학의 전통과 나

라와 민족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제승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선하고 미래가 있는 여러분 후배 재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의무고시에서 수석합격을 하는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른 학교와의 경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를 미래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손 쉽게 여러분의 손으로 걸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는 그러한 경쟁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생존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배 재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磨斧爲鎗의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미래가 여러분의 손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동국이라는 거목에 신선하고 생동감있는 활기를 불어 넣어서 '동국의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 본인은 온 힘을 기울여서 10만 동국인의 지혜와 역량을 한군데로 결집을 하여 모교의 발전에 온 마음을 다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동국이라는 거목도 국내에서 물이치는 변화의 바람을 맞아 새잎과 새줄기, 새뿌리를 결실해 필요로 하는 전환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이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맞게 WTO체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외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내에서도 개방과 국제화의 열기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동국이 민족사학의 전통과 나

총동장회장
황 명 수 합장

사설

하나된 목소리로

새해 아침이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고 덕담을 새겨 새해의 포부를 다짐 때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많은 변화가 우리를 찾아왔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김근초가 정치군부 축결,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개혁정치가 실시되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했다. 결국에는 보수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개혁의 한 통계를 드러내며 어느 것하나 확실히 바뀐 것이 없었었다. 더구나 하루 아니 한시간을 다투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인위적 손길을 얹는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면치 어려운 수임개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분명 지난해 정치권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우리사회 변화흐름을 주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학사회는 그 변화의 수용들이 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 대학마다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골몰하고 개교몇주년 기념사업이나 하며 재정확보마련에 부심이다. 이는 지금의 시기가 절체 위기에 직면한 대학이 살수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때라는 것을 대학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2천년 대학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사학의 재정난, 부패등 민사상태에 처한 대학은 이제 개혁과 획기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일이 곧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힌 통계자료는 다가올 2천2천년에 대학지원자가 정원에 못미쳐 대학이 '고액유치'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 경고한다. 해마다 4대1을 웃도는 입시경쟁률 덕택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대학들은 허둥거리고 있다. 그러나 몇몇 대학은 냉철한 자기평가와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첫시행단계에 와 있기도 하다.

Y대의 경우 '이제 대학은 교육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행정책임자들의 각성어려워 직제개편을 하고 전 구성원이 참여해 작성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단계별 사안으로 정리해 질적도약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만 분과와 실장은 어떠한가.

지난해 재단형성과 행정재정등을 요구하며 구성원들은 동국중흥을 부르짖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선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구에 마지못해 이끌린 몇몇 책임자들의 즉자적인 발전구상과 기구설치, 그에 따른 체제없는 기획 때문에 여전히 발전계획은 실질화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채로 머물러 있다. 동국발전협의회나 개교백주년 기념사업회등 모두 구성원의 합의나 동의없이 상충부기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구성원은 답답하기만 하다. 무엇을 하냐고 하는 데 정사정 제도도 없다. 기금이 안 걸린다 고 학내 구성원부터 모범을 보이려고 재촉한다. 합의하지 않는 일 에 누가 적극적으로있겠는가. 요컨대 학교발전계획안은 즉자적이고 단편적이 되어가는 안된다. 또한 냉철한 자기평가와 치밀한 계획,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동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런지 모른다. 머뭇거리며 여유가 없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좀더 냉철한 평가속에 흉내내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방법으로 발전대안을 만들어나가자. 마디걸더라도 추진력있는 발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해 신명나는 학교발전사업이 진행될 새해에 바라바지 않는다.

7년간 진통을 겪은 UR은 결국 우리 농업, 농민, 농촌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예고하며 그 대안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UR의 파고를 넘지 못한 농산물을 개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기쁨과도 업연한 이 현실은 그 동안 경제·사회정책에서, 국토개발정책에서 그리고 기술인력 개발에서 소외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편향적인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이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가 이를 경계하게 받아 진지한 자세로 대처하고 농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의지와 각오로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농업시장의 개방은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는 치열한 국제 경쟁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늘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낙후된 농업생산 기반과 취약한 유통구조에 따른 농업구조의 결함과 농업생산능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산업의 구조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농촌을 국제시장의 미야저러 방지한다면 이농, 이촌 농지투매, 농가부채, 식량 및 축산자급도 감소, 농촌의 공동화,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업·농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은 물론 산업정책과 도시사회의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편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정책과 논의가 대부분 경제적 그리고 생산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본다.

농업·농민·농촌문제는 경제적 원리와 비교우위성 원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특성과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일찌기 비농업분야의 경제중심의 정책, 농업분야의 사회 보장중심의 정책으로 농업, 농민을 보호하여 왔고 농업과 비농업의 밀접한 산업연관과 경제 사회적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의 공간질서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21세기의 지역개발정책의 최상의 과제는 어느 지역에서도 동등한 생활기회의 창조에 있으며 지역의 경제 사회적 생활환경 개선에 있다고 본다. 또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요 구되는 농업정책의 과제는 농촌지역의 최소인구유지 유지에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은 전 국토의 일부분으로서 농업은 전산업의 초석으로서 상호보완적이며 완충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이 정책적 우선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농촌 지역인구 보전은 농업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취업정책,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과 도로 및 교통정책 등의 과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세로운 공급원 없는 생존할 수 없듯이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인체의 세포와 같은 기초생활권과 도로 및 교통, 에너지 공급, 상·하수도 교육, 보건, 의료 및 휴양시설, 행정서비스 등 하부구조 (Infrastructure)의 공급은 동진양면과 같은 지역개발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권은 하부구조의 공급 정도와 질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계층화되어가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지역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역 행정단위의 자율적이고 자치적 책임의 지역계획수

에 정책적 우선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농업구조개선책은 농업, 농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농촌지역주민 모두의 경제적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농촌지역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기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근린 및 산업시설용지공급 확대, 주거 및 경지정리 사업, 농업생산부분별 수평, 수직적 조직화와 전문화, 유통시설개선 그리고 농업내의 농지소유권 보호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유통성 향상과 동시에 농지경작권의 완전개방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비농민의 영농기회 확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제도의 개선 및 장기적 법적보호 등이다. 특히 농지의 황폐화를 막고 농촌환경 및 농업인구보존을 위하여 농지경작자의 농지관리 의무화를 통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UR이후 농업의 경쟁력은 농민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명중의 하나가 되었다.

농업의 시장경쟁력은 생산비용절감과 상품의 고급화와 차별화, 기술개발 및 시장정보화, 농업관련산업육성 및 고급 전문농업인의 양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시사·논단

유 덕 기

농과대 농업경제학과교수·지역경제학



농업구조 개편만이 살길

농산물 시장개방 의미와 대책

며, 또한 지역의 자생력과 농업산업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요소가기도 하다. 특히 농촌인구가 부족할 경우 농촌경제와 농촌지역산업의 경쟁력과 경쟁력은 상실되고 지역산업의 결핍과 산업간 활동이 상실되어 인구의 이동을 자극하게 되는 악순환이 형성됨으로써 결국 농촌은 인구의 감소 그리고 교통 등의 총체적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거주인구와 농업관련산업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부분의 서비스 산업을 위한 입지적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거주 및 산업입지조건 개선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권 개발과 공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원활한 공급에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 정책의 기본틀은 농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업을 농촌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농촌지역산업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산업은 농업관련산업으로서 특히 지역특성에 적응된 식품가공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농산물의 고부가가치와 농업의 소득원의 창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농촌인구유지 유지를 위한 중심산업이기 때문에 취약한 농업구조개선

또한 농업산업의 이용장출은 우리 농업의 당면된 과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유효수요인력에 의한 농산물생산과 소비자 요구충족을 위한 마케팅능력개발 및 향상 그리고 물적 유통시스템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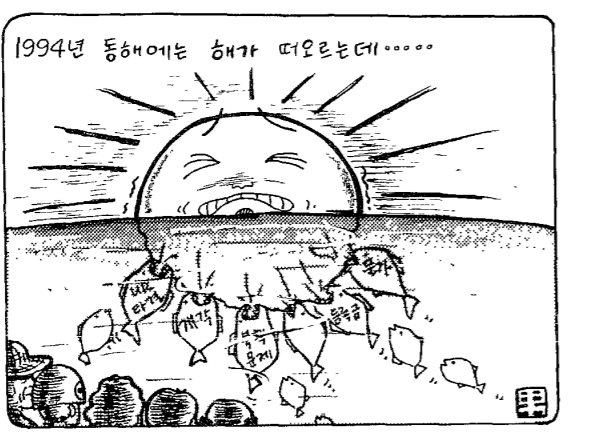
농산물특별법 제정의 시장개방 전라수업과 전략상품개발, 농산물 계약재배 및 공급, 생산자단체육성 및 계열화등 이의 좋은 추진책이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이 UR과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은 기술혁신의 수용성향 이 높은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농업산업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개발 및 농업구조개편은 결국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민적 품공급의 안정과 만족한 국민경제적인 농업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전한 농업 구조와 동등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으며, 건전한 농업구조는 물론 농민이 농업활동에 통하여 물질적, 정신적 기본 생존권이 장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東國漫評

김상남



1994년 동해에는 해가 떠오르는데.....

학복위 혁신대안 논의와 전망

공개특별 감사와 함께 일선대학에서 이미 이후 출한 해결의 과제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학복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문제가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가칭 이하 공관위)구성과 10대 학복위의 이월작업등을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공관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89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92년도에 들어서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초에는 실질적인 합의내용을 문건화하는 진전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만해사정의 직영과 문제를 둘러싼 학복위와 학교측과의 의견차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서 공관위 문제는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관위가 꾸러지게 되면 현재 학복위에서 직영관리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여러매장들과 지원기 부사실등 모든 수익사업을 공관위에서 관리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학교당국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수익사업도 공관위에서 공동관리하게 된다.

이때부터 학복위는 학생들의 생활복지 부분에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년 고질병처럼 있어오던 급전에 관련된 비리 의혹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뿐 아니라 크게는 복지영역의 확대를 가져오고 복지 매장을 학생들에게 조금씩 불려 함도 없이 개선해 나가는 등 운영하기에 따라 커다란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학생회의 힘이 약화 되었을때 공관위가 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리사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편의적으로만 굴러가는 경우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공관위내에서 추구 목적이 다른 여러 목소리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 일관적이지 못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서로의 의견차로 인해 배척되리게 될 것이라는 점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잘해보자고 모인것이 또한 서로의 벽만 실감

하고 뒤돌아서는 시행착오의 장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근본적으로 공관위를 바라보는 학생측과 학교당국의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위헌성 헌법 문제에 있어서는 학복위측은 평교수를 원하는 반면 학교측은 실무 관계를 잘하는 교수가 맡기를 바라고 있는 것에서 보더라도 학교당국이 후생복지 업무의 일직선상에서 행정적 자율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공관위 문제의 정쟁 사안 있었던 서점문제는 오는 15일까지 만해사정에서의 단일화를 합의하고 서점을 직영화 하느냐, 임대하느냐의 문제는 만해사정 임대기간이 끝나는 95년 전까지 조사와 연구를 거쳐 공관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공관위 문제가 이행될 사무국 구성을 목표로 비교적 순조로운 향해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10대 학복위 구성은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임원들의 임기가 지난 31일로 끝나게 되면서 그 호흡은 더욱 가빠졌다. 10대 학복위는 3월 학복위 위원장 직선선출

이후에나 정상화 될 것이고 그 이전까지 학복위 업무는 학복위 임원 3인,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3인, 각 학생 지체 기구의 본지회, 감사의 역할을 맡게 될 총대의원 2인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칭)에서 맡게 되어 준비위는 앞으로 2주 안에 꾸러져야 한다. 추천하는 여러 학복위 혁신사안들은 현 회칙내에서 타당성을 얻기 어려워 최종 개정 또한 가장 시급한 사안중에 하나다.

모르고 있던 바는 아니지만 학생투표에 의해 학생들의 의견은 확실해졌으며 나하갈 방향도 정해졌다. 남은 과정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20대 총학생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내느냐에 있고 학생들은 학복위의 정상화까지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복위 혁신이라는 과제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란 것은 분명하지만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즉각적인 앞서는 것도 곤란할 것이다.

(하동혁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옵길 축원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본사 조계사

주 지 중암 현근 신도회장 홍성광명 합 장 사부 대중

종 무 소		산 하 단 체	
교학 사무국	732-2115	신관	외 739-1951
동방제일선원	720-6742	도내	외 723-8992
조 계 신 문	739-2589	승 임	외 736-4848
	720-1389	대 보	외 737-4926
		정 청	외 735-3724
		대 중	외 720-5334
		어 고	외 734-8179
		원 심	외 736-9043
		회 의	외 720-4528
		사 부	외
		대 중	외

조계사 불교대학

☎ 720-6742 720-1390 FAX 720-1391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p>대한불교조계종</p> <p>서울시 금정구 정릉동 54-6번지</p> <p>☎ 02-5081-3636</p> <p>5081-3127</p>	<p>범 어 사</p> <p>주 지 조 실 지 유 정 관</p> <p>대 중 임 원</p>	<p>삼仙布敎院</p> <p>三仙僧伽大學</p> <p>講 院 長 志 光</p> <p>講 師 妙 洵</p> <p>서울시 북구 동성동 3가 255번지</p> <p>☎ 02-9233-0550</p>	<p>대한불교조계종</p> <p>경남고성군 개천면 부령리 4008번지</p> <p>☎ 0556-7210100</p> <p>대 중 임 원</p>
<p>대한불교조계종</p> <p>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5-1/3번지</p> <p>☎ 02-2741-5554</p> <p>2741-4011</p>	<p>조 방 관</p> <p>지 점 장 정 재 형</p> <p>직 원 임 원 등</p>	<p>법보대학교 지점인행</p> <p>지 점 장 김 창 완</p> <p>직 원 임 원 등</p> <p>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130번지</p> <p>☎ 02-2781-4011</p>	<p>대한불교조계종</p> <p>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130번지</p> <p>☎ 02-2781-4011</p>

'93 기자방담

변화물결 적응못한 동국의 난제 '산적'

▲생생한 보도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학내 곳곳을 뛰어다닌 기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학내와 학외 전반에서 변화가 심했던 지난해 학내에서는 재단혁신 운동으로 이어진 학원자주화투쟁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동국금 합의를 시작으로 서울 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 학자투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국중흥안당개최를 제안하며 학교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재단측의 불분명한 태도는 즉각 분관점거능력, 학생회 간부 9인 중징계, 비상학생총회, 교수회, 석립회 등 학내구성원들의 진상규명요구등으로 이어지며 1학기 학내의 재단혁신의 요구로 정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 들어 정계철화와 3차회담 가능성이 비추던 호조에서 학내 구성원들간의 입장차이, 학생들의 관심 저하등의 이유로 학자투는 마지막 힘을 실어내지 못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이렇다할 학자투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기성회 총회파문과 교수회가 선임한 김갑주교수의 부총장 취임, 자연과학관 완공등의 사안이 떠 올랐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김영삼 문민정부 충격으로 요약되는 정치·제도권의 변화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먼저 학내에 휘몰아친 학자투의 풍향을 정리하고 평가를 보겠습니다.

서울캠퍼스 25대 총학생회 내진 '민중동국자주중흥'의 슬로건은 학생 근거지대중흥, 다시말해 학원자주화투쟁을 학생회 사업의 가장 큰 관점으로 맞추어 학교발전과 관련 고된과 실천을 보다 구체적인 상으로 잡아냈던 것입니다.

지난 88년 이후 5년간 침체되었던 학자투를 좀더 발전적으로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 학자투는 명확한 사상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재단혁신투쟁에 일정정도 학생들의 호응 일어난 것이 성과입니다.

매년 초 총학생회 치뤄왔던 동국금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총학생회 입장만 동국중흥의 대의를 잘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측과 동국금 인화논쟁이 아닌 학교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는 투쟁의 보편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대체로 교수·직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백60일간의 학자투가 진행되면서 여러부부에서 쟁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는데도 우선 학생들을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보인 학생들의 무관심, 학내구성원과의 연계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재단이사화투쟁 및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 등 일련의 재단혁신투쟁의 목표들이 타성 이사단원의 퇴진이후 다시 들어선 이사들을 살펴보면 과연 관철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학기에 들어서 특



동국중흥기치아래 재단혁신 한발 다가간 한해 학내 구성원 합의없는 발전사업 '용두사미' 교육환경 급변속에 동국발전 대안마련 시급

이러나 보인 학내 재주체와의 연계부족과 아울러 사람만 바뀐 이 사가면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캠퍼스의 상황은 제10대 총학생회가 주도한 기성회투쟁이 지난해 가장 큰 학내 사안이었습다. 결과적으로 기성회총학생회는 개최하였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더 나아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면한 학생회 학자투사업의 표현방식으로 밖에 인식되었던 총학생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학교의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일정정도 현실성이 있었음에도 뚜렷한 분석과 학내 주체들과의 연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끌어들였다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주캠퍼스 재주체투쟁의 일환으로 벌인 부총장직접인사철회를 위한 부총장실 절기, 기성회총학생회 투쟁등 일련의 투쟁들 학자투는 절충적으로 접근해 지지않았다는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학내 현안을 돌아보면 때늦을 수 없는 사안으로 서울캠퍼스 복지위원회 비리후과파문을 들 수 있습니다.

88년 학부위가 세워진 이래 재단사업의 예·결산조사 제도로 안된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파문에 대해 일련 학생들은 곳곳에서 제기되는 혁신의 파에 귀를 기울이며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회계상의 오류가 분명히 지적된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동국중흥안당무산 점거농성에 학교측이 취한 대응이 총학생회 간부 9인이 중징계였던 것은 일정정도 자중수로 교육적 징계를 버리고 징계자체를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학내구성원들의 요구로 세워진 동국발전협의회는 솔츠 준비된 사업들이 많았으나 이후 사업들에 대한 합의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부당한 사업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지난 4월 발족을 하며 발전계획입안을 세우려던 중 이과 비숙한 기념사업을 준비중인 타대학교 비교할때 후회될 결정 및 성공모급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국대 재단, 학교의 문제점은 발전만을 이야기할뿐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는 어느 불교신문 사설의 지적이 무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정기국회 회기중 교육위 김원웅 민주당의원 제출한 교육백서에서 '동국대학교의 경우 재단 총 수익의 61%만이 전입금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8할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써야한다'는 사립학교 경영재산

기준에도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한림대의 64.5% 고려대의 40.3%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건물확보율이 교육부 대학 설치기준에 비해 70%를 못미치는 수치를 나타냈습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재단의 경우 장기간 '단기적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책임은 가지지 않은채 위치만을 고집하는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참석자' (Attendees) and '서울 캠퍼스' (Seoul Campus) listing names and roles.

◇일시: 93년 12월 16일 오후 6시
◇장소: 본사 회의실

전망과 계획수립의 모습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의료원의 경우 예정을 계속 끌던 포항병원 증축이 의료원의 질적·양적 성장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건평 3천여평에 이르는 자연과학관의 건립이 과포화 상태의 경주캠퍼에 미친 교육공간 확대는 기대 이하로 변하게 없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평가를 받았습다.

현재 공사 진행중인 학생회관 증축 노천강당신설과 아울러 경주캠퍼스 공간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또 불교문화대의 설립에 맞춰 불교대의 활성화·육성화 방안이 시급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한국·신경계간선로 축약의 개혁정책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중진영에 상대적 침체를 안겨준 문민정권은 올해 초 울산 현충원 파업시 보여준 고등노동운동 정책과 요사이 실시장 개방정책등을 통해 그 허구성과 개혁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중문 출판식은 전대협을 이어받아 1백만 청년층의 생활·학문·투쟁의 구심점으로 양적·질적변화발전의 모습을 보여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대외연대회 보여준 당파적 대립이나 김춘도경관사건이후 침체된 사업들을 어떻게 극복해나나가는 율령한 한중문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법 독소조항 신설등 개혁과 혁신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던 새정권이 실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보수회귀의 내각개편등에서 극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취업과에서는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 취업전선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타학교의 경우 광통신등 최신설비와 자료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본교의 취업전선망은 타 학교 수준에 못미치며 학생들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가까운 장래까지 쉼보지 않고 '남들이 하나기 우리도...' 식의 구태의연한 행적정리를 다시보는것 같이 안타깝습니다. 행정에 구체적

기록·정리=이재환(지)

35일간의 자전거 유럽 여행기. 페달을 밟으면 떠나고 싶다. 이 겨울, 당신도 세계를 품을 수 있다!

소설 김일성. 김일성의 참모습과 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이항구 장편소설

영작문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길! 삼지영작문비결. 시사영어학원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만남은 알리앙스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교육개방시대 도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

우루과이아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함께 교육도 점차 개방되게 됨 되었다.

그래서 교육도 개방적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대신문은 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은 그동안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 더욱 욕심을 부린다면 다음의 몇 가지에 좀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

첫째, 동국대학교 각 구성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좀 더 많이 취급함으로써 학교발전이 기여할 수 있다. 각 구성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통합하고 조화시켜야만 큰 힘이 나올 수 있다. 동국인들의 힘을 통합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둘째, 학교의 신문으로서 독후감을 좀 더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루과이아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함께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자의 욕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급적 좋은 책을 읽은 독후감을 더 많이 다루었으면 하고 바란다.

셋째, 동문들의 활동과 관심사도 가깝게 취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졸업생들도 동국가족이며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같이 걱정해야 할 것이다. 동문들의 활동과 관심사를 다룰 때 동문들의 힘을 동국대학교의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더욱 큰 힘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취업정보를 좀 더 많이 취급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취업정보는 재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장점과 특성을 좀 더 많이 다루어 동국대학교를 외부에 홍보하고 자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학교의 특성과 좋은 점을 다룰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대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권오철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일린글터 '94동대신문에 바란다

정보전달 역할뿐 아니라 가치관형성 도움주길

게유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휘몰아친 개혁의 사명감과 같이 시작하여 국제화시대의 경쟁을 실감케 해 준 우루과이아라운드 협상의 파문으로 막을 내렸다.

새 정부가 내걸었던 깨끗한 정부의 기치아래 사회의 기동권 중의 일부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이계는 진과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구성원들의 생활속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를 부정해 주는 것은 바로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모이주는 언론이다. 언론은 보도를 통하여 사회의 현상을 여러가지 모습으로 비추어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큰 것이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은 대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보다 사회의 거울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그 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다.

요즈음 우리는 정보와 매체

한다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과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구성원들의 정보전달에 있어서의 충실한 역할과 가치관을 담아내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만 지켜나갈 수 있다면 대대신문의 내일은 어둡지만은 않다고 본다.

갑술년의 새이름을 맞이하여 동대신문이 대학의 상식을 키워나가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

안재봉
(충무고 인사계장)

다양한 모색 통해 의견 수렴장 구실해야

대학신문은 제도권신문과 달리 '올바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시각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동대신문이 여론체제를 한 가지로 부각시키고 있다.

88년 동대신문 여론체제에서 시도했던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와 '동아광장'은 반응이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동대신문이 학우들의 손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으로 다가왔다. 내용면에서도 학내외의 주제를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하였고, 주제선정이 대체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전반적인 대중성 획득의 시도가 돋보이는 장이라 생각된다.

학우들의 의식이 동대신문에 반영되고 매체의 독자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대신문이 가진 독자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대신문에 시각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한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신문편집의 시각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의 시각대로 설정한 주제, 기획 등은 기자의 시각이지 학우들의 시각은 아닐 것이다. 일방적인 주제설정 통해 설문 받는 방식이 아닌 학우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게유년의 동대신문에서는 학우들의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되는 신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전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재설
(자연대 조경학과)

역사적 대전환기 눈과 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의 변화를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직접적인 생활공간과 활동영역,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인색한 나로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혼란과 새로운 모색, 실천을 시도한 것만 보더라도 보수언론이건, 관세언론이건, 정통언론이건, 각-각-각적으로 언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동학의 여러 언론을 통한 동학의 1만학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조심스럽게 판단해 본다. 간략하게나마 동학의 정통대 동대신문에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적어 본다.

흔히들 요즘을 가리켜 역사적 전환기니 혼란기니 한다고 하는 누구도 그렇게 이 시대를 규정짓는 것에 부인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동학의 1만 학우들의 진정한 눈과 입이 될 것을 다짐하는 동대신문이라면 전환기 시대를 살아가는 동학 1만 지성들의 고민과 모색들을 진지하게 대변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동림
(불교대 불교학과)

동문 투고 시

普 賢

정선택
(경대 86출(개인사일))

사랑도 물러나고 무구한 세월 흘러갔다가
저기 사람오니 그 사람 누군가
수승한 行 쫓아 온갖 萬行하나 고달플사
저 사람은 法文이 무궁무진하구나
하얀 고깔모자 쓴 여인 또 어디 있는가
사랑이여 쫓기고 쫓아 시방세계 제도하며
반기는 者 여기 없으니 너는 과연 미천한 것인가
석가여래 제도 衆生한 사람 없다하니
바로 너 자신 사랑도 석가여래 아닌가

동문갈림

구세군의 자전 남비소리가
저기를 울리는 것을 보면 어
느듯 명동거리에도 세모가 찾아
오고 있다.

30년전 동국의 이름들 등에
업고 다녔던 뱃사람이 거
리를 거닐던 것이 이제 50을
넘기고 보니 젊었던 시절의
뜻이 새워졌어야 할 법도 한
데 어찌다가 긴 여정을 지나
면서 뒤를 되돌아 보면 뜻밖
으로 된 것은 별로 없고 오류와
부족한 것만이 남는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는 냉정하면서도 무미건조하

모름지기 내가 생각하고 행
하는 바를 미리 인식할 수 있
다면 확실한 삶의 지표가 정
해질 수도 있을 것같은 생각
을 가끔 하여 보곤 한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과 상
관없이 시간이 흐르게 되고
경쟁 행정학을 공부하였던 나
는 가야할 길과 상관이 없이
우리 신조가 아주 오랜 옛날
부터 만들어 사용되어 왔던
우리민족의 전통 생활 용기인
그릇에서 조선, 조선족 그리고
중국이라는 우리민족 동질성
의 개념을 일직선상에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통 문화가 계속되는 한 그
민족은 영원하다는 지극한 이

고 불리한 것들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
다보면 매우 이치적이고 과학
적이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
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전문화, 다양화되어가는 오
늘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창의적이고 능력위주의
현실성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
고 이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
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
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범
적 사회 생활인텐데 정작 우
리는 이길을 걷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문들이 지역적, 다민족적인
지역적 사회로부터 세계화
의 넓은 사회로 의식 전환 변
화가 요청되는 바 미래의 세
계를 살아가는데 우리 동국인
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생활의
시금석으로 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정병락
(용기민속박물관장
·경향행정 67출)

세모(歲暮)의 단상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나의 삶

오늘을 사는 동국인 — 김영현군

“사회를 치료하는 social doctor와 같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민간살의 나이로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의 주인공이 된 김영현(경향행정4)군은 아직도 열혈필사하는 미소를 지으며 합격소감을 밝힌다.

집안이 없는 국민은 누가 대표할 것인가?란 다소 진부한 의문을 가지고 열린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김군. 정부를 두게 만들어 국민서비스에 앞장서겠다며 당차게 말하면서 계산고시학사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고시공부했던 선배들의 부족으로 인한 고간의 시행착오 등의 의로웠던 고시공부기간을 활발한 웃음으로 넘긴다.

노력과 신념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며 김군은 고시 준비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조언을 던진다. 또한 본격적인 고시공부도 좋지만 1-2학년때 자신의 철학을 세울 수 있도록 인문·사회 교양서적을 충분히 읽으라는 말을 덧붙인다.

과 특성상 오후5시부터 유도를 해서 다른 학생처럼 써클활동 등을 통한 좀 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했더라도 아쉬운 여운을 남기는 김군이지만, 시험이후 '유유백 차기' 회장으로 나섰던 동국관 축구팀들에게 유유백 차기를 권하는 말을 하며 상냥한 눈빛을 보여준다.

판도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놀고 먹는 자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김군.

가속 가득 담긴 자유의 의지를 언제까지나 지켜나가는 열린사회의 일꾼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귀주영 기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동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동대신문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론매체부)

나이지길 바라며...
-잘나가는 ○장and족들이, 백수 club장

94년 한해는 모든 MECS인이 행복하고 발전하길 빌며 MECS의 성공적인 신입생(여)선발을 기원합니다. -14기 B-S

동국서도도 새해 복 많이 왕창 받으세요!! 갑술년에도 하나되어 열심히 합시다. -93

13일 손정일, 16일 김운수의 생일이네요. Happy new year! -회계학과

93년 1년동안 연습하라 17기 이가들(?) 수고 많았다.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도록 기도하며 단장, 부단장 잘 보필하여 맛있는 16대 백상원단이 되길 바란다. -15기 어떤 선배가

Happy New Year! 그리고... 그럼, 진우야 열심히 그래라. 그밖에 7기들도 열심히... -1

밝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C-A-C! 더욱 잘 하세요. -C-A-C! 지는 해

탈골들! 1994년 갑술년, 개처럼 바보개 하지만 보람있게 보내도록 합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前총무

바람소리 New집행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바람소리로

나은 도약을 기대합니다. 선배님, 후배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1 케빈

새해 복 만나니 받으세요. 동불가족 여러분!! -이름 모를 불제자

동대 국외 20주년을 위해 우리 모두 개의 해에는 진짜 개처럼 됩시다. -어느 국회의원

한해가 가는 마당에 새해가 온다. 합창부 잘해. -1景

94년 임원단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손짓사랑회

불교학생회 여러분 그리고 동인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담 88金剛 손모음

동학의 유일한 미학동아리 민·미·연의 신인 외장 추대를 축하합니다. 장연주(독문과 92학번)선배 Fighting! 땀과 피의 졸업 축하하도!! -93학번의 노담들 일동

오늘은 언론학교 가는날. 모두 잘가서 재밌게 지내자. 동대신문사 화이팅!

동학! 광장!

신개교하고 합니다. 갑술년에 출발하는 불교문화대 학생회는 새해에도 동국가족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화합과 도약으로 하나되어 일어서는 제1대 불교문화대 학생회

2전 상경인 여러분! 새해에 인사드리게 되어 참 기쁩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 할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결의를 다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전 상경인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따르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들의 계획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드릴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들은 상경대학생의 선거과정에서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과 학생회에 바라는 요구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멋진 상경인을 보아 한 올해 사업은 자신있다 각오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8대 상경대 학생회

전진하는 참된 지성 2전 인문언어 9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8대 인문언어대 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약속 드렸던 '동학을 꼭 실천에 옮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일에서부터 호응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학우 여러분이 계획하

신 모든 일이 94년도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8대 인문언어대 학생회

자연대 학우 여러분! 밝아 오는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희 학생회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희망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회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소중한 기쁨을 바탕으로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1년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관심있게 지켜 보아 주시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제4대 자연언어대 학생회

해방물결 3기 여러분들의 인회를 축하해요. 그리고 군에 가는 2기들은 건강하시구요. -대모

오수기형과 합영진의 94년 1월1일 결혼을 축하합니다. -Bio 92

2월27일 평화의 귀뚜라미 날을 일제감치 축하드려요. -19

12월8일 김태영의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한이예1 남성

정영언! 철딱서니 없는 선배

상일이의 군입대를 축하하며... -울산 친구가

동일이 벌써 2년이 지났구나. 2년 후엔 얼마나 변해 있을지 모르겠다. 잘 다녀와라. -국사 2년

성우야! 힘들겠지만 군에 가서 고생 좀 하라와라. 수고! -미술 1

방학중에도 수업하는 한의대 학우 여러분! 힘 내십시오. -예1

8기 아그들이!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에는 더욱 착해지길... -DUCC 7기

생활화와 학우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차기 생활화 학생회장

3년 뒤에나 보게 될 학교야! 더욱 새로와져라. 여러분 안녕!! -92 미아콜

용메이에게, 인호야. 연산 모두 보고파! 조망간 서울에서 한번 만날테지만... 그때까지 건강해. -메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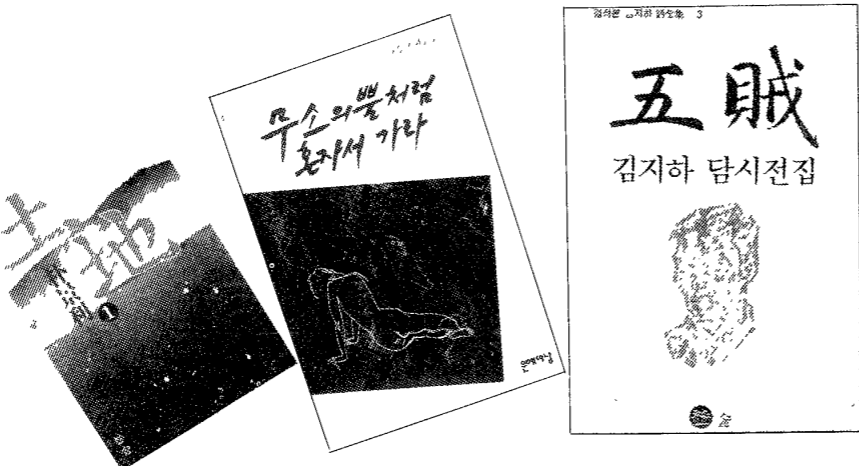
바로 서는 제4기 인.협 식구들! 내내너도 함께 뛰는 한해를 만듭시다. - 동대 신문사

'93 문학총평

이 시대 '미네르바의 부영'은?

민중문학 "그 이념과 좌표 상실했다"
본격문학 "소비문화에 밀려 타락했다"
문화생산환경 변화·생산주체 각성 요청돼

I.
요즘처럼 '세계의 얼굴'이 빠르게 변화한다면, 미네르바의 부영이 가 황혼 위를 조용히 날아다니던 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소설 신세대 작가 대거 등장
개별성만이 살아남는 길

쟁점없는 '잠수시대'
세계변화 대응부족

전체 이념·국가·민족 등의 환경은 별반 중요치 않게 되어 버렸다. 우리들의 피부에 차갑고 서늘하도록 와닿는 '그녀'의 느낌은 경제적 욕망과 소비문화로서의 문화의 이미지에 자리 잡아 갔다.

산문체의 작성이 주목되고 요정되어야 한다는 현실상황이다. 올해의 문학과 예외인 것 같지는 않다.

II.
소설 쪽에서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장편소설의 범람이다. 작가들은 문학적 열정과 심미적 완성도를 지향하는 좋은 중·단편 대신에, 독자층의 지면 확대와 출판상업주의에 부응하여 '도화기'가 있는 상품포장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려 했다.

이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장 큰 특징은 '잠수시대'라는 대서특필의 대서특필이다.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유신체제 하에서 '오직'이라는 불굴의 용기와 지조를 보여준 작품으로 전설적인 시인이 되었던 김지하는 최근 들어 '생명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듯하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개방주의의 자나, 변절자나 운운하곤 한다. 그러나 김지하의 위력은 예의 그 변절에서 찾아질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김지하는 변절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시인이었다.

그외의 중요한 시집들은 '회자의 밤(최승호)', '호랑이 나무의 기억(이성복)', '황금빛 모서리(김종익)', '6은 나무 7은 돌고래(박상준)', '세상의 모든 저녁(유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시집들은 대체로 산업 사회에서의 해체된 개인 삶의 모습을 절망적으로 고발하거나, '존재의 지막'으로의 서정적 회화를 보여주거나, 자아의 은밀한 욕구와 자유로운 연상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했다.

III.
시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년의 붕괴와 함께 가속화된 우리의 리얼리즘 문학의 퇴조를 보면서, 문인이 이토록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시를 내놓음에 못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도 잊지 않는다.

시와 시의 경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소년의 붕괴와 함께 가속화된 우리의 리얼리즘 문학의 퇴조를 보면서, 문인이 이토록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시를 내놓음에 못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도 잊지 않는다.

IV.
문학사회의 변화와 함께 산문체의 작성이 주목되고 요정되어야 한다는 현실상황이다. 올해의 문학과 예외인 것 같지는 않다.

V.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VI.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VII.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VIII.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IX.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X.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이 말은 올해의 문학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우리를 삶의 환경, 원리, 가치기준 등이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문화의 모습이 명쾌하고 단호할 수 없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듣기 좋은 소리로 '도덕'이나 '덕성'을 운운하지만, 정작 시인·작가들은 피습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색하지만, 민중문학은 그 이념과 좌표를 상실했다고도 하고, 본격문학은 상업주의의 소비문화에 밀려 타락했다고도 말해진다.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이 시대의 '부영'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다.

윤재웅 (문과대 국문과 강사)

특히 신문에

여가시간

김영주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영주

현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고 나면 쌓인 피로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최소한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다음 그 나머지 시간에 다소의 여유가 생기면 즐겁게 놀기도 하고, 사람들과

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 일하는 방법만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여가시간을 술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단순 오락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일은 물질적인 삶의 논리에 쫓겨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생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마련이다. 심한 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에서 떨어진 에너지의 고갈을 다시금 재충전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인의 생활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노동시간 둘째, 잠자기 셋째, 생리적 필수시간 마지막으로 앞의 두영역을 제외한 여가시간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다. 노동시간의 경우 그 시간이 얼마나 자신의 창의성과 주체성, 자발성을 지니면서 인간의 최후적인 자기 구현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전 직업과정을 자기 스스로 직접 기획하고 일을 해나가는 일부 예술가나 전문가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러한 경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 인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간에서 자기 존재를 구현할 수 있는 '진짜 의미있는 자기시간'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 살아있는 자기시간을 찾아가야 하나? 그 대답은 여가시간에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 삶을 주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

미려학자들이 예견하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는 자기 구현의 사회, 보다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진화하며, 아울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도 배어 놓을 수가 없다. 또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해질수록 현대인은 점차 외부 존재적인 생활 양식으로 부터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내부지향형 인간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이의 수단으로 일 못지않게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여가에 대한 전통적 개념, 즉 일만이 가치(생산적)이고 여가는 비생산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학계의 투자가 연구는 많았지만, 여가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일에 비해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치있는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당장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우선, 의미있는 여행을 위해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읽을수록 새로운 깊이 보여
고정 관념 깨는 '힘있는 책'

읽을 수 없는 한 권의 책

책 이야기는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그 수많은 책들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자양이 되고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고 추억이 된 책들. 삶에 지쳐 잠든 것처럼 쓰러져 있는 나를 새롭게 깨워 주는 책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말한다. 해도 내게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언젠가 나는 정신은 '잠자에서 시, 삶의 지혜는 '번뇌에서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한 적이 있다.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 잠자기 깨우쳐주는 저 정신의 자유로움, 그 넉넉함이 영혼의 갈증을 씻어내주는 원천이 라면 한비야는 이상 삶의 도통이다. 내게는 달라도 북 병들게 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때문에 이런 자리마다 내가 거론하는 책은 잠자와 한비야가 언제나 선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근대에 들어 나는 또 다른 영혼을 준 책들을 추가하고 있다.

예컨대 노자와 채근담, 명심보감 그리고 삼가귀감! 그러

그 중에서도 서산의 삼가귀감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준다. 유엔고지 밑에서 병명생활을 할 때 늘 손에 쥐고 읽었던 것인데, 서해가 지난 이제까지도 읽을수록 더욱 새로운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이 내가 읽었던 것은, 모든 깨우침은 하나로 연결되고, 그 하나의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과거의 나는 삼가귀감을 불경오묘만 이해했다면, 새로운 나는 이 책을 사학의 리로도 읽을 수 있다는 깨우침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어느덧 스님의 불경 불교에 관한 것이었다. 고정 관념에 빠져든 나를 다시 깨워 내는 힘이 있었다. 도대체 불교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참다운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라면서도, 그 철학의 하나인 처음부터 그 철학 안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래서 책 읽기는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그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책 읽기 없으면 나는 그 철학을 즐기곤 한다.

박재천 (시인·국문 63)

한 책들인데, 이들과의 인연 역시 짧은 것은 아니었다. 잠자리를 읽던 어린 소년기에 함께 만났던 책들이었지만 잠자리의 파에 밀려 제 이름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최근에 나는 한권의 책을 펴냈다. 이름하여 '마음의 생이'이다. 이 책이 채근담, 명심보감과 함께 삼가귀감을 옮겨 수록하면서 참으로 오래도록, 그리고 진지하게 그들의 귀중한 유물 해 나가면서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강타하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도덕한 힘을 충분히 맛볼 수 있었다.

개교 100주년기념 사업기금 기부자 명단

- 이두철 (지역개발대학원 동창회장) 5백만원
조흥은행 종로지점 5백만원
박수열 (행정대학원) 3백50만원
박기동 (불교대학원) 3백만원
홍성표 (산업기술대학원) 3백만원

(1월 18일~12월 7일 현재)

△이종철(산업기술대학원생)=24만2천4백50원 △김영진(불교대학원생)=100만원 △진경희(불교대학원생)=30만원 △김근수(비상계과과장)=50만원 △윤병식(경주 불교학과 교수)=100만원 △이인자(경주 회화과 교)=20만원 △박상진(경주 생화학 과 교수)=20만원 △이두철(지역개발대학원 동창회장)=500만원 △박상호(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장)=100만원 △김보현(도서관장)=100만원 △오복용(경주 교무과장)=50만원 △차준환(예산조정과장)=50만원 △신용태(일어일문학과 교수)=100만원 △신병직(포항병원 원무부장)=20만원 △한규상(불교대학원생)=10만원 △홍철기(산업기술대학원생)=25만원 △윤근환(불교대학원생)=100만원 △정지호(수학교육과 교수)=100만원 △박환오(경리과장)=50만원 △황옥자(경주 불교

아동학과 교수)=50만원 △임배근(경주 경제학과 교수)=30만원 △이철교(도서관 일일과과장)=300만원 △유종기(도서관 사서과장)=50만원 △차정진(경영대학원 동문)=10만원 △김철규(경영대학원 동문)=200만원 △홍성수(대학원생)=10만원 △김용성(동문)=20만원 △유완관(불자)=240만원 △김변용(행정학과 교수)=200만원 △정동찬(경영대학원 동문)=150만원 △백민기(불자(교재실))=50만원 △박수열(행정대학원)=350만원 △박기동(불교대학원생)=300만원 △이계순(불교대학원생)=100만원 △박병우(경주 총무처)=100만원 △박병수(정학과과장)=50만원 △전호련(불교학과 교수)=100만원 △양기덕(경상대 동문)=20만원 △신용익(경영대학원 동문)=10만원 △손정옥(공과대학 재학생)=10만원 △최경수(불교대학원생)

=100만원 △백남태(불교대학원생)=10만원 △김태영(경영대학원생)=50만원 △임영순(역경원 업무부장)=50만원 △박경훈(역경원 편집부장)=50만원 △이귀중(국민은행 총무로지점)=100만원 △조흥은행 종로지점=500만원 △홍성표(산업기술대학원생)=300만원 △홍성강(수학교육과 교수)=50만원 △인기성(동문)=10만원 △최병각(경상대학 동문)=50만원 △김홍기(수학교육과 교수)=50만원 △함정화(불교대학 재학생)=10만원 △고형수(불교대학원생)=100만원 △유병주(불자)=100만원 △김갑주(경주 부총장)=100만원 △김종삼(재단 사업부장)=50만원 △허과자(불교대학원생)=10만원 △양인옥(불교대학원생)=20만원 △김정식(대학원생)=100만원 △신동욱(만덕자 주지)=50만원 △임홍식(지정장사 주지)=20만원 △정지

홍(경도사 주지)=30만원 △양장운(주)동양)=100만원 △손상길(교육방송국장)=100만원 △정상식(교육대학원생)=100만원 △차성진(학적과과장)=50만원 △공삼진(53법과 주, 고 교장)=100만원 △이종영=100만원 △김삼룡=100만원 △박수철(57학원 주, 고 교장)=30만원 △박장우=50만원 △손준근=1만원 △김성수=1만원 △김진원=100만원 △서승삼(78계 계 주)=100만원 △김재우(불교대학원생)=100만원 △박근호(국회의원)=100만원 △이병관(불교대학원생)=100만원 △이창운(불교대학원생)=100만원 △이준삼(대학원생)=50만원
소계:6천5백16천2천4백50원 (81 명)
누계:3억8천6백12만7천9백50원 (542명)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본부 제공)

동국대학교 94학년도
전기 합격자 안내

동국대학교에 지원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94학년도 전기 합격상황을 합격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안내전화: (02)260-3491, 2
(0561)770-2057

東大新聞社

신년특집좌담

95년 내학종합평가, 교육시장 개방 등 대학교육정책의 급속한 변화가 우리대학에도 예외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전체 학내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중·장기적 발전대안의 새로운 모색이 시급할 때다.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모신 가운데 본교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21세기 동국발전방안 세워야 할 때

'제2의 개교' 신념으로 단계적 계획 모색·수립 급선무

△사회자:연말 공사다량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 교수님들의 동국발전 방향을 위한 진지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주저하시다 시피 국내적인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우리대학 역시 어느 대학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시기인듯 싶습니다. 대학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의 변화속도와 폭이 커지고 있고 이에따른 충격 여파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종합평가가 인정을 제의하고 교육시장 개방 등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에 여기 모신 각 단과대 학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은 학교발전 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신 것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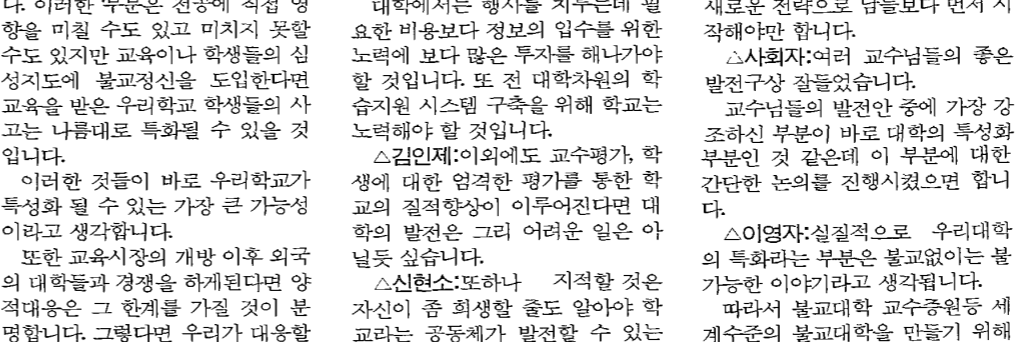
△정용길:우선 기획조정실장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대학은 95년에 대학종합평가 결과 2등급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국제적 조류도 함께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나 개방이 없다 할지라도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중 가장 기본적으로 교수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대학 종합평가에 대해 학교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막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의 예산을 교육시설 확충 등 평가에 준비하는데 투자할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도는 대학종합평가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그럼 여기서 대학종합평가에 대해 잠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대학종합평가의 대비에 있어서는 정량적 평가 즉 학교의 외형적 평가 보다는 정성적 평가 즉 학교의 질적 평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용길:정성적 평가에서는 대학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량화, 수치화 되어있는 정량적 평가는 외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므로 평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영자:정량적 평가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행정책임자들의 학외모듬들을 통해야 올바르게

△사회자:연말 공사다량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 교수님들의 동국발전 방향을 위한 진지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주저하시다 시피 국내적인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우리대학 역시 어느 대학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시기인듯 싶습니다. 대학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의 변화속도와 폭이 커지고 있고 이에따른 충격 여파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종합평가가 인정을 제의하고 교육시장 개방 등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에 여기 모신 각 단과대 학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은 학교발전 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신 것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우선 기획조정실장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대학은 95년에 대학종합평가 결과 2등급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국제적 조류도 함께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나 개방이 없다 할지라도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중 가장 기본적으로 교수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대학 종합평가에 대해 학교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막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의 예산을 교육시설 확충 등 평가에 준비하는데 투자할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도는 대학종합평가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그럼 여기서 대학종합평가에 대해 잠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대학종합평가의 대비에 있어서는 정량적 평가 즉 학교의 외형적 평가 보다는 정성적 평가 즉 학교의 질적 평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용길:정성적 평가에서는 대학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량화, 수치화 되어있는 정량적 평가는 외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므로 평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영자:정량적 평가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행정책임자들의 학외모듬들을 통해야 올바르게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대학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보수적 성격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회자:여러 교수님들의 좋은 발전구상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발전안 중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대학의 특성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이영자:실질적으로 우리대학의 특화라는 부분은 불교였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교대학 교수님들 등 세 계수준의 불교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용길: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업적에 중점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화나 전문화로 연결되고 있으며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따른 격차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학회의 구체적인 상으로 우리학교의 경우 정신과학이나 사상부분이 특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체 아래 파벌로 특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자질 향상일 것입니다. 또한 학문간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교수채용에서 기초분야와 특화될 부분으로 나누어 우수교원 영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의 강요방범을 고쳐야 할 것이며 대학원 강의를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졸업논문 제도의 학점 인정을 통한 강화를 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수와 학생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학풍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정보확충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개선해 신간도서가 발행되면 그때그때 교수가 직접 구입해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대학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보수적 성격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회자:여러 교수님들의 좋은 발전구상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발전안 중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대학의 특성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이영자:실질적으로 우리대학의 특화라는 부분은 불교였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교대학 교수님들 등 세 계수준의 불교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용길: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업적에 중점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화나 전문화로 연결되고 있으며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따른 격차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학회의 구체적인 상으로 우리학교의 경우 정신과학이나 사상부분이 특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체 아래 파벌로 특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자질 향상일 것입니다. 또한 학문간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교수채용에서 기초분야와 특화될 부분으로 나누어 우수교원 영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의 강요방범을 고쳐야 할 것이며 대학원 강의를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졸업논문 제도의 학점 인정을 통한 강화를 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수와 학생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학풍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정보확충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개선해 신간도서가 발행되면 그때그때 교수가 직접 구입해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대학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보수적 성격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회자:여러 교수님들의 좋은 발전구상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발전안 중에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대학의 특성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이영자:실질적으로 우리대학의 특화라는 부분은 불교였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교대학 교수님들 등 세 계수준의 불교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용길: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업적에 중점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화나 전문화로 연결되고 있으며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따른 격차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학회의 구체적인 상으로 우리학교의 경우 정신과학이나 사상부분이 특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체 아래 파벌로 특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자질 향상일 것입니다. 또한 학문간의 벽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교수채용에서 기초분야와 특화될 부분으로 나누어 우수교원 영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의 강요방범을 고쳐야 할 것이며 대학원 강의를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졸업논문 제도의 학점 인정을 통한 강화를 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수와 학생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학풍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정보확충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개선해 신간도서가 발행되면 그때그때 교수가 직접 구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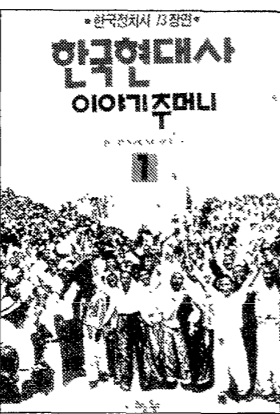
- 일시: 1993년 12월21일 오후 1시30분
장소: 본사 주간실
사회자: 차수련 (경상대 경영학과교수·본사주간)
참석자
정용길 (사회대 정의과교수·기획조정실장)
이영자 (불교대 불교학과교수·불교대 학장)
이종찬 (문과대 국문과교수·문과대 학장)
민태진 (이과대 화학과교수·이과대 학장)
백봉흠 (법과대 법학과교수·법과대 학장)
이황우 (사회대 경영학과교수·사회대 학장)
김인제 (경상대 경제학과교수·경상대 학장)
신원소 (공과대 화공과교수·공과대 학장)
장오현 (경상대 경제학과교수)

롯데칠성음료(주) 광고

Let's Be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holding a can of Let's Be coffee and several cans of different flavors (진한맛, 부드러운맛, 풍부한맛). Text includes '레쓰비의 뜨거움이 그녀에게로 갔다' and '콜롬비아 원두로 만들어 맛이 깊고 풍부한 레쓰비 - 때론 혼자서도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편파적·왜곡적 서술 배제 노력 “한국현대사의 사전 역할할 듯”

앞으로 1년이면 우리 현대사도 벌써 반백 년이 된다. 해방, 남북분단, 한국전쟁, 이승만 반공독재, 4·19, 5·16, 박정희 개발독재, 유신, 김대중, 12·12, 광주항쟁, 5·17, 민주화대항쟁, 노동자대투쟁, 지역분열, 3당합당, 이른바 문민정부…….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의 흐름은 차라리 소용돌이치는 격류였다. 부당하고 깨어지고 쫓겨나고, 그럼에도 또 다시 물결기를 이루는 그 격렬하고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 앞세워 그리고 우리 세대는 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사는 역사학 연구의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미움, 분노와 슬픔, 삶과 죽음 등이 실재해 얽힌 운명적 집단경험으로 다가온다.



이 책을 펴내면서

현대사에 전혀 무지한 것은 아니라 왜곡된 지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함께 얽혀온 그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또한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현대사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운 많은 현대사 지식이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선택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이 땅의 현실만큼이나 뿌리깊은 반공보수적 역사관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붐을 일으켰던 진보적 역사학 연구 역시 은폐된 역사를 발굴하고 재평가를 시도했다는 중에도 불구하고 비판자세를 위한 편향은 없었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잠시 멈추어 좀더 객관적으로, 보다 온당하게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가 된 것 같다.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된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기 정당화의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 과거에서 역사 교훈을 끌어내고 그것을 미래의 역사 건설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바람에서 우리는 감히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한국정치사 73장편’을 펴내게 되었다.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는 보다 풍부한 역사 지식, 보다 시려 깊은 역사 인식이 대중들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조그마한 반응이다.

전체 3권으로 분류되는 이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잠시 살펴본다.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92년 6중화국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책은 전체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해방정국의 사건들이며, 제2부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단과 전쟁의 시기인 이항시의 사건들은 본연의 이름으로 비극적 정조를 띤다. 제3부는 주로 이

승만 반공독재와 이에 대한 반체제로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와 민족적 저항과 관련이 있다. 제4부와 제5부는 산업화,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박정희 정권 시기이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상의 군부독재와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다수이다. 제6부와 제7부는 재등장한 군부독재와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격동적인 과정이었고 그 후반기부터는 국제적으로 탈냉전의 세계사적 변화가 진행되었던 1980년대 초반의 사건들이다. 그런만큼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탈냉전을 앞두고 박정희에 달했던 역사의 진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우리는 몇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주로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역사를 보려왔다. 따라서 서술방식도 역사적 배경, 전개과정, 결과와 영향, 약간의 평가와 감상 등, 대체로 사건 서술의 표준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은 일단 독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서술방식에 있어 학문적 문제의식과 이야기의 흥미로움을 결합했다. 지나친 학문적 편향은 일반 대중에게 어렵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반면, 지나친 이야기 서술은 흥미 위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셋째,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한, 주관적인 판단과 단언적 평가를 줄이고자 했다. 우리가 본래 가졌던 의도는 중립한 문제의식을 살리려 판단의 몫은 읽는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개인이 역사속에 사는 개인이 되고 연구자는 그 판단을 돕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건을 통해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대중 역사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현대사의 주요한 사건들이 상당 부분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전적 역할도 일정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이 조금이라도 대중들로 하여금 한국현대사에 보다 친밀하게 접근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미래의 기반으로 삼게 만든다면, 우리의 의도는 보람받은 것이다.

김 용 현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미친 임금

변화가 일어났다. 아당이 아닌 여당의 대통령이었던 때문에 그의 개혁정책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내각구성에서부터 고위직 재산공개등 초기 개혁조치를 지켜보며 새 정국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결코

인 한탄상부추리, 오병문 교육부장관, 이인제노동부장관등 일정 개혁인사를 배치했던 1기 내각과 달리 이번 2기 내각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경험자를 배치했다는 자평’이지만 결국 진보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보수세력의 도마위에 놓였다는 이들의 회의(의) 경질과 실무자라는 이유로 5.6공세력을 등용한 것을 생각하면 보수세력의 완전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이회창총리를 제외하면 개혁이라는 전제에 어울리는 인사가 없다. ▲한반 개척소와 거국내각이라 이름 붙여진 원만한 보수내각 구성을 보며 그릇된 대세에 함몰된 임금을 떠올린다. 보수세력의 결별하지 못하고 근근 개혁을 실행하지 못한 이의 회귀는 예정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신년 초 우리는 보수의 악을 탄 우물물을 마신 임금을 보는 안타까움이 밀려올을 어찌할 수 없다.

미래지향적이지 않는 ‘형식적 개혁에 차츰 국민들은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필수적인 후속조치를 위한 금용실명제, 추상적 대진 제안 제시한 채 뒤따르지 않는 법 개정, 그리고 대통령직을 결코 지지했던 동산들의 수임개방. 이젠 하나들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 21일 양 부총리와 14개부처 각료가 교체되었다. 재야출신

▲옛 날 한 현명한 임금님이 통치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다. 백성들은 훌륭한 임금님 덕택에 어려움이 없게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평화를 시키기 위하여 온 백성이 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 약을 타놓았다. 이 물을 마신 백성들은 모두 미쳐버렸고 이 물을 마시지않은 임금님만 미치지 않았다. 그러자 우물물은 마신 신하들은 임금님이 자신들과 틀리기때문에 임금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온 나라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미친(?) 왕을 불신하게 됐고 모든 것이 혼란에 휩싸였다. 임금은 밤새 고심하던 끝에 단 하나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냈다. 임금 은 그날 밤 그 우물물을 마셔버렸다. ▲지난해 초 이른바 문민정부라 일컬어지는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면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당이 아닌 여당의 대통령이었던 때문에 그의 개혁정책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내각구성에서부터 고위직 재산공개등 초기 개혁조치를 지켜보며 새 정국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결코

영화의 패러독스 액션 포함한 코미디 양식 “외화에 기죽을 필요없다”

지금의 한국영화의 위기라고 누구든 짐작하고 있다. 외화의 홍수속에서 법적 제도적 차원의 투쟁이 급선무이겠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영화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과 젊고 신선한 영화가 끊임없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상성순이 아니잖아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의 강우석감독이 만든 새 영화 ‘투캅스’는 한국영화의 여전히 건재하며 오락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외화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좋은 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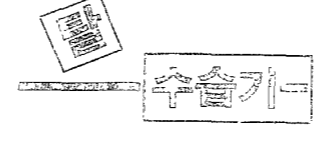
이영화는 기획의 의도에서부터 철저하게 할리우드 영화의 오락성을 대체하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만들어졌다. 그런 의도에서 이 영화는 기존 할리우드가 갖고 있는 여러 오락적 양식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차용하는 과감함을 보인다. 신랄과 고함의 두 경향이 결합하는 이야기는 프랑스 영화인 ‘마이 뉴 파트너’에서 상당수 힌트를 얻었으며 이미 할리우드에서도 터럭 췌 췌 ‘시리’를 통해 대중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코미디 양식은 우리 영화에도 할리우드의 영향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대우오락 장르인

내가 가진 펜과 깨어가는 의식으로 신문쟁이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

데 액션과 더불어서 이 영화의 주요한 양식이 된다. 할리우드를 그대로 빌어왔어도 자본과 기술의 도움이 없이 안되는 특수효과와 스펙타클은 물론 이 영화가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기술과 자본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얼흔 이야기’, ‘당군의 아들’, ‘서편제’ 등을 통해 이어 다어만을 가지고도 국민영화는 외국영화를 능가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이미 남기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관객들이 외국영화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경험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잘 만든 우리 영화와 더불어 ‘투캅스’가 보여주는 국산 영화의 전략은 우리 관객의 정서에 보다 투철하게 부합한다는 것이고, 관객이 우리 정서가 들어간 영화 작품을 애용해 줌으로써 국산 영화가 결코 외화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다.

‘투캅스’의 뛰어난 점은 그 오락성에 대한 영합보다도 현실에 바탕을 둔 문제의식과 우리의 정서를 수반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영화는 많은 에피소드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



◆김덕실 기자

네를 용서할 수 없을 거다. 확신하지 않으면서 다짐하려는 지금의 너.

신문의 푸르름이 눈부시던 5월, 처음 그때가 달리는 차창에 매달린 기어울처럼 아련히 멀어지고, 내 사유속에서 이미 멈춰선 겨울의 차가운 가을을 뚫으며 가고있다. 게으른 유채로 텅빈 머리통을 이고 원고지를 퍼든 애송이 기사를 두고 휴우.

난 참 많이도 나를 닮아 있다. 선택할 때의 망설임과 지금 또 다른 시작에서의 머뭇거림이 이렇게 비슷하니 말이다.



◆김덕실 기자

데. 하지만……. 신문사는 만곡과 감사에 익숙하지 못한 내 스무살의 삶에 또 한번 부사라는 나를 안겨 주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낸 지금 나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민족과 감사를 배웠

그때, 지금까지 나를 울려대었던 건 ‘수습’이 아니었다. 쓴 웃음 지으며 때려박는 발치않은 지난 1백8십여일, 한없이 손이 떨려왔다. 취재원내 대하된 두세번 연습하고 준비했던 질문요지가 까맣게 잊혀져 갔고 다시 기자가 되려는 나를 향해 높은밤 불꽃진 학생회관 층계를 내리오던 나의 발걸음은 이미 선택한 나의 길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기도 했다.

지난 수습기간동안 나는 내속의 지나친 욕심에 스스로 지쳐왔는지

도 모르겠다. 신문을 고민하기 보다 기사를 쫓고있고, 나의 나태에도 변함없이 발행되는 신문앞에 나는 늘 낙담한 듯이 왜곡된

그리고 지금 수습에서 정기자로의 변화된 이름앞에 처음 선택한 클리나 아직도 낯설은 경주신문사의 현실, 일어사자, 주지않은 나는 나를 웃긴다. 떨리는 손으로 옮겨 적었던 취재수첩의 휘갈겨진 글씨, 때로 무척이나 힘드었던 취재원과의 마찰, 그 모든 것들을 삼킨 나는 이제 연습하는 수습의 펜이 아닌 실천하는 기자의 펜을 소유해야 한다. 대야상은 갈들하지 말아야지. 철저한 자유에 나를 맡기리라. 난 지금 신문사에 있고 내가 가진 가난한 한자투의 펜과 깨어가는 의식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서둘러 신문쟁이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 어느새 나는 겨울속으로 함께 흐르고 있다. (인문대 중문과)

간지와 갑술년

밝아온 94년은 갑술년(甲戌年)이다. 갑술년은 신간의 첫번째인 갑(甲)과 십이지의 열한번째인 술(戌)이 합해진 육십간지(六十干支)중 열한번째 간지(干支)이고, TV를 강타할 상징동물은 술(戌)이다. 글자가 시사하는 대로 ‘개’이다.

하늘을 상징하는 간(干)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열가지로 이루어져 십간(十干), 땅을 상징하는 지(支)는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범) 묘(卯, 토끼) 진(辰, 용)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酉, 닭) 술(戌, 개) 해(亥, 돼지)의 열두가지로 이루어져 십이지(十二支)라 하고 십간과 십이지를 결합하면 60개의 간지가 되어 이를 ‘육십간지’ 또는 ‘육십갑자’라고 부른다.

우리 61세의 생일을 환갑(還甲), 회갑(回甲)이라고 부르는 것은 ‘출생한 해의 간지와 똑같은 간지의 해가 돌아왔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십이지의 개념은 중국 은대에 확립되었으나 방위와 시간에 대응해 사용된 것은 중국 현대이고 쥐, 소, 범 등 동물에 대응한 것은 원전 후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십이지에 동물을 대응한 십이지신상은 관복을 입은 사람의 몸에서 동물의 머리가 달린 수면인상(獸面人身像)으로서 이 십이지신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네팔까지 분포해 있다.

십이지신상은 민중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 민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했으며 토착비밀은 천간지지(天干地支)와 오행(五行)을 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문화부)

문학단신



◆그 섬에 가고 싶다… 소설가 임철우의 원작소설을 시나리오화 한 작품이다. 작가가 유년기를 보낸 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천라도 사투리가 재미를 더한다. 호암아트홀 12월25일 개봉.

동국대학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 후원회 결성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국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런 동국대학교가 역사적인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동국가족의 영광이며, 동국과 더불어 우리 10만 동문과 2천만 불자들에게 무궁한 긍지와 보람을 심어주는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국은 舊韓末 국운이 기울어 갈때 교육만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일깨울수 있다는 불교계 선각자들의 투철한 의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동국은 우리나라 근대사와榮辱을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도적 인재양성으로 사회봉사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은 이 한세기에 걸쳐 다져온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이라는 동국정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더욱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야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당국에서는 이미 ‘개교 100주년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세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만 동문 및 2천만 불자 여러분!

우리 동국의 자람은 무엇보다 동국의 품에서 빛나는 학문을 연마해나간 10만여 동문과 2천만 불자 여러분의 소리없는 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각계 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동국 발전의 주춧돌이고, 또 ‘大東國’의 발전이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열원과 원력이 바로 동국의 미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100주년’의 영예는 우리 세대에 단 한번 누릴 수 있는 세기적 축복이면서 또한 그만큼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이런 참여는 개교100주년기념사업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나아가 세계속의 동국으로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훌륭한 전통과 값진 역사로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충실히하기 위하여 우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동국대학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 후원회’를 공식 결성하였습니다.
10만 동문 및 2천만 불자 여러분!
이 세기적인 동국사랑 실천에 한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1993년 11월 5일

동국대학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후원회 회장 黃明秀

총동창회 사무국 1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전화 733-3991~3 FAX 733-3992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본부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본관 4층 전화 260-3690,3490 FAX 260-3691

1차모금목표:100억원

모금대상
동문, 불교신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

모금의 내용
가. 개인별 모금
나. 단체별 모금
○동창회: 각 지역, 직장, 학과, 동기, 적성 지회별로 단체 참여
○불교계: 각 종단, 교구본사, 사찰, 신도 및 신행단체별 참여
다. 독자가 모금
동문, 불자, 사회인사, 학부형 등의 특별성금

접수 방법
가. 직접대방 또는 방문 요청
○서울캠퍼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본부(본관 4층)
○경주캠퍼스: 기획홍보과(원호관 2층)
나. 은행 온라인 송금: 가입자-동국대학교 총창 민병천
조흥은행 동국대학교 출장소 313-03-002943
국민은행 충무로 지점 068-01-0373-353
한일은행 강릉동 지점 064-032276-01-004
주택은행 강릉동 출장소 491001-93-200472
외환은행 퇴계로지점 065-13-19671-0
우체국 동국대학교 출장소 012328-0075465
다. 리모용지 이용: 번호 7606368 (동불한 소형약식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부한 분에 대한 예우
가. 100만원 이상 기부한 분중 희망하는 분에게는 학술문화관 성함 각인 또는 청동도금불상 봉안
나. 기념품 증정
다. 기부자명부를 발간하여 영구 보존
라. 모교 및 동문회 인쇄물 우송
마. 학교출판물의 할인 혜택

세세상의 혜택
법규정에 의해 손비처리됨